

국어의 음운규칙

이 상 역 (서울대 국문과)

1. 음절말 장애음 중화: 음절말 장애음(ㄱ계, ㄷ계, ㅈ계, ㅂ계)과 마찰음(ㅅ계)은 단어 경계나 자음 앞에서 파열되지 않아, 중화현상을 일으킨다. 중화현상에 의해 국어의 음절말 자음은 7개(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자음만이 허용된다.

예) ㄱ계: 색[sek-], 부엌[puək-], 닭고[tak-kko]: ㄱ계 받침은 모두 [k-]로 실현됨.

ㄷ계: 끝[kot-], 낫[nat-]: ㄷ계 받침 모두 [t-]로 실현됨(단, ㅌ 받침은 국어에 존재하지 않음).

ㅅ계: 낫[nat-], 낫다[nat-tta]: ㅅ계 받침 모두 [t-]로 실현됨.

ㅈ계: 낫[nat-], 낫[nat-]: ㅈ계 받침 모두 [t-]로 실현됨(단, ㅉ 받침은 국어에 존재하지 않음).

ㅂ계: 집[cip-], 옆[yəp-]: ㅂ계는 모두 [p-]로 실현됨(단, ㅃ 받침은 국어에 존재하지 않음).

용언에만 존재하는 ㅎ받침은 다음에 ㅅ이나 ㄴ으로 시작하는 접사가 오게 되면 [t̚]로 중화되며, ㄴ으로 시작하는 접사인 경우에는 [t̚]로 중화가 된 다음, 다시 [n]으로 비음동화를 일으키게 된다.(단, 폐쇄음으로 시작하는 접사가 오게 되면 유기음화를 일으키며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가 올 경우에는 수의적인 ‘ㅎ’ 탈락현상을 보인다.) 예. 놓--+소: 놓쏘[not̚ssɔ], 놓--+는: 놓는[not̚n̚n̚]→논는[nonn̚n̚]. cf. 놓--+고:노코[nokho], 놓--+지:노치[nochi], 놓--+다:노타[notha], 놓--+아:노아[noa], 놓--+으면:노으면[no̚myən].

음절말 중화현상은 어근끼리 결합한 복합어의 경우에는 두번째 오는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하더라도 첫번째 어근의 말음인 장애음은 중화규칙이 적용된다. 복합어를 형성하는 경우에 개재하게 되는 경계는 형태소경계로 간주되어 왔으나, 중화규칙과 관련하여 단어 경계와 동일한 기능을 보여준다.(그래서 내부단어 경계를 설정하는 학자도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자음군 단순화 현상에서도 목격된다.) 물론 첫번째 어근의 음절말 자음이 중화를 일으키면 두번째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음절조정규칙과 유성음화규칙을 거치게 된다. 예. 텃(##)업시[tət̚##əpsyi]: 텃업시: 더텃시[tədəpsyi], 젓(##)어미[cət̚##əmi]: 절어미: 저더미[cədəmi], 옷(##)오르다[ot̚##or̚da], 부엌(##)안[puək̚##an]: 부엌안:

부어간[pu^əgan], 곁(##)웃[k^ət̃##ot̃]: 곁웃: 거돋[k^ədot̃], 무릎(##)아래[mur̃ip̃##arẽ]: 무릎아래: 무르바래[mur̃ibarẽ].

단, ‘맛있다’의 경우에는 위의 규칙에 의해 따라 나온 형태인 ‘만있따’[madit̃tta]가 ‘마싯따’[masyit̃tta]와 수의적으로 교체된다.

2. ㄷ구개음화: ㄷ, ㅌ으로 끝나는 어간은 ‘이’('히')로 시작하는 접사나 어미를 만나면 ㅈ[c], ㅊ[ch]로 실현된다. 예. 곶이[koji], 해돋이[h^ədoji], 같이[kachi], 날날이[nannachi], 달히다[tachida], 갓히다[kachida].

3. 비음화: 음절말 장애음은 비음 앞에서, 동화되는 장애음과 동일한 위치에서 조음되는 비음으로 동화되어 실현된다. 즉 ㄱ계는 [ŋ]로, ㄷ계·ㅌ계·ㅈ계는 [n]으로, ㅂ계는 [m]으로 실현된다. [n]은 다시 ㅁ으로 시작하는 접사 앞에서 [m]으로 동화되기도 한다.(아래 B8항의 변자음화 규칙을 참조하기 바람.) 예. 학문: 향문[haŋmun], 부엌만: 부엌만[pu^əman], 낚는: 낚는[naŋññ]; 해돋는: 해돋는[h^ədonññ], 말는: 만는[manññ]; 뜯만: 뜯만[tt̃t̃man]: 뜯만[tt̃ñman], 있는: 인는[it̃ññ]: 인는[inññ]; 늦는: 늘는[ñt̃ññ]: 는는[ñnññ], 쫓는: 쫓는[ccot̃ññ]: 쫓는[cconññ]; 합리적: 합리적[hamñij^ək̃], 높낮이: 높나지[nomnaji].

4. 유음화: 어중의 ㄹ[l]을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ㄴ[n]은 유음이 된다. 예. 신라: 실라[syilla], 칼날: 칼랄[khallal].

단, 유음의 두번째 [l] 다음에 [i]나 [ya, y^ə, yo, yu]가 뒤따르면 ‘A5. ㄹ구개음화규칙’에 따라 구개음[ɻ]이 되며, 다시 ‘B18. 구개자음 뒤에서의 구개음[y] 탈락규칙’이 적용된다.(‘팔년’의 경우도 마찬가지.) 예. 진리: 질리[cillyi].

‘ㄴ’이 ‘ㄹ’을 앞서는 경우 앞의 ‘ㄴ’에 뒤의 ‘ㄹ’이 ‘ㄴ’으로 바뀌기도 하며(예1. 신문로: 신문노[syinmunno]), ‘ㄴㄴ’이 ‘ㄹㄹ’로 되는 수도 있고(예2. 관념: 팔렴[kwally^əm]), ‘ㄴㄴ’이 ‘ㄹㄹ’로 굳어진 것도 있다(예3. 곤란: 콜란[kollan]).

5. 유기음(격음)화: ㅎ으로 끝나는 음절에 폐쇄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결합되거나, 폐쇄음으로 끝나는 선행음절에 ㅎ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결합되면 하나의 유기음으로 축약하여 실현된다. ‘ㅎ’이 어간말자음군의 두번째 자음이더라도 이 규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예. 놓지: 노치[nochi], 낳던: 나틴[nath^{ən}], 역할: 여칼[y^əkhal], 입학: 이팍[iphak̃], 싫고: 실코[syilkho].

6. 경음화: 1) 고유어에서 음절말 ㄱ계, ㄷ계, ㅂ계 자음 다음에 오는 장애음(ㄱ, ㄷ, ㅂ)과 마찰음 ㅅ, 그리고 파찰음 ㅈ은 경음(된소리)으로 실현된다. 음절말 장애음이 자음군 단순화 현상(B7항 참조)에 따라 ㄱ계, ㄷ계, ㅂ계가 된 경우일지라도 이 규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예. 국밥: 국빻[kuk⁻ppap⁻], 깎다: 깎따[kkak⁻tta], 샅돈: 샅똥[sak⁻tton], 닭장: 닭짱[tak⁻ccaŋ], 뽕대다: 뽕때다[ppot⁻tteda], 값지다: 갑찌다[kap⁻ccida], 있던: 일똥[it⁻ttən], 꽃고: 꼰꼬[kkot⁻kko], 꽃다발: 꼰따발[kkot⁻ttabal], 발갈이: 받까리[pat⁻kkari], 겁장이: 겁짱이[kəp⁻ccaŋi], 덮개: 덮깨[təp⁻kkɛ], 읊조리다: 읊쪼리다[ip⁻ccorida].

단 고유어의 경우에 형태소경계를 사이에 두었을 때에만 경음화현상이 일어나며 음절 경계를 사이에 두었을 때에는, 즉 형태소 내부일 때에는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만지다[manjida], 움직이다[umjigida] 등)

2) 한자어 또는 한자어와의 복합어의 경우에도 경음화 현상은 ㄱ계, ㅂ계 등(ㄷ계는 한자어에 없음)의 장애음 다음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ㄹ, ㅁ, ㄴ, ㅇ 다음에서는 경음화 현상을 보이는 경우와 보이지 않는 경우의 두 경우가 공존하고 있다. 예. 악기: 악끼[ak⁻kki], 역사: 역싸[yək⁻ssa], 납조각: 납쪼각[nap⁻ccogak⁻], 펄박: 펄빡[phip⁻ppak⁻].

ㄹ, ㅁ, ㄴ, ㅇ 다음에 경음화 현상을 보이는 경우, 예. 갈등: 갈똥[kal⁻ttʰiŋ], 흙집: 흙쩍[hʰimccip⁻], 문범: 문뺨[munppəp⁻], 성과: 성파[səŋkkwa].

ㄹ, ㅁ, ㄴ, ㅇ 다음에 경음화 현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 예. 결과[kyŋlgwa], 감동[kamdoŋ], 현대[hyəndɛ], 평등[phyəŋdʰiŋ].

3) 기타의 경우: 1] 어간말음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ㄱ, ㄷ, ㅂ, ㅈ’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예. 신고: 신꼬[syinkko], 껴안다: 껴안따[kkyəantta], 앉소: 안쏘[ansso], 더듬지: 더듬찌[tədʰimcci], 닭고: 닭꼬[tamkko].

단, 피동접미사와 사동접미사 ‘기’는 동일한 환경에서 경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예. 안기다[angida], 감기다[kamgida], 옮기다[omgida].

2] 어간말음 ‘래, ㄹ래’ 뒤에 결합되는 ‘ㄱ, ㅂ, ㄷ, ㅈ’은 경음으로 실현된다. 예. 넓게: 널깨[nəlkkɛ], 할다: 할따[haltta].

3]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ㅂ, ㅈ’은 경음으로 실현된다. 예. 할 것을: 할꺼슬[hal kkəsʰi], 갈 때가: 갈때가[kal ttega], 할 바를: 할빠를[hal pparʰi], 만 날 사람: 만날싸람[mannal ssaram], 할 적에: 할쩌게[hal ccəŋɛ].

7. 자음군 단순화: 1) 국어에서 모음간 3개의 자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저에 2개의 자음을 가지고 있는 어간들은 단어경계 앞에서, 또는 형태소경계를 선행시킨 자음 앞에서 2개의 자음 가운데 하나의 자음을 탈락시키는 규칙이다. 일반적으로 중자음(中子音)을 탈락시키고 변자음(邊子音)을 표면형에서 실현시킨다.(예외: 여덟) 例. 샅: 삭[sak⁻], 흙: 흑[h^hk⁻], 값: 갑[kap⁻], 삼: 삼[sam], 젊다: 점따[c^əmtta], 앓다: 안따[antta], 업고: 업꼬[^əp⁻kko].

2) 용언의 어간말 자음군이 ‘ㄹ’과 무성 폐쇄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위의 규칙은 오히려 수의적으로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ㄹ’을 남기고 다른 폐쇄음을 탈락시키는 것이 더 일반적인 현상이다. (‘할다, 싫다’는 ‘ㄹ’을 탈락시키는 경우가 수의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例1. 맑고: 말꼬[malkko], 밝고: 발꼬[palkko], 읊지: 읊찌[^hlcci], 할찌: 할찌[h^hlcci]. 例2. 막고: 막꼬[mak⁻kko], 밥고: 밥꼬[pap⁻kko], 읊지: 읊찌[^hp⁻cci], 할다:………예외.

단, 자음군의 두번째 자음이 ^h인 경우에는 다음에 오는 폐쇄음을 유기음화시킨다. (넣고[n^əkho], 싫지[syilchi] 등)

8. 변자음화: 1) 변자음화규칙: 중자음(ㄷ, ㅌ, ㅈ계)은 변자음(ㄷ계, ㅌ계)이 후행하면 그 변자음에 동화되어 변자음과 동일한 위치의 음으로 실현된다. 이 현상은 역행동화 현상이기 때문에 후행하는 변자음의 종류에 따라 전부변자음(양순음계)이면 전부변자음으로, 후부변자음(연구개음계)이면 후부변자음으로 동화된다. 例. 전부변자음 ㄷ계 앞에서의 변자음화(전부변자음화) 낮+보다/낮+보다/낮+보다: 날뿐다[nat⁻ppoda]→납뿐다[nap⁻ppoda], 발+보다: 발뿐다pat⁻ppoda[]→밥뿐다[pap⁻ppoda], 전+보다[c^ənboda]→점보다[c^əmboda].

2) 후부변자음화규칙: 전부변자음과 후부변자음이 만날 때에는 전부변자음이 후행하는 후부변자음에 동화된다. 例. 후부변자음 ㅌ계 앞에서의 변자음화(후부변자음화) 잇--+고/잇--+고: 잇꼬[it⁻kko]→익꼬[ik⁻kko], 받--+고: 받꼬[pat⁻kko]→박꼬[pak⁻kko], 낮+까지/낮+까지/낮+까지: 날까지[nat⁻kkaji]→낙까지[nak⁻kkaji], 받+까지: 받까지[pat⁻kkaji]→박까지[pak⁻kkaji], 잔+까지[c^ənkaji]→장까지[ca^hkkaji].

9. y-활음화: ‘-이-’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아/어’계 어미와 결합하게 되면 그 어간말 모음과 어미는 하나의 음절[-ya/y^ə]로 실현된다. 例. 즐기--+어: 즐겨[c^hlgy^ə], 디디--+어: 디더[tidy^ə], 흘리--+어: 흘려[h^hlly^ə], 붓비--+어: 붓벼[pumby^ə], 이--+어: 여[y^ə], 지--+어: 저[cy^ə],저[c^ə], 키--+어: 켜[khy^ə].

10. w-활음화: ‘-오/우-’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아/어’계 어미와 결합하게 되면 그 어간말 모음과 어미는 하나의 음절 [-wa/wə]로 실현된다. 例. 꾸---어: 꺾[kkwə], 두---어: 뒤[twə], 보---아: 봐[pwə], 주---어: 쥐[cwə], 나누---어: 나뉘[nanwə], 다투---어: 다투[tathwə], 싸우---어: 싸워[ssawə].

‘지---어: 저’와 같이 구개음 다음에 구개반모음이 오는 경우에, ‘B6.구개음 뒤에서의 구개반모음 [y]탈락규칙’에 의해 ‘저’는 ‘지’로 실현된다.

‘스’불규칙용언과 ‘ㅎ’규칙용언도 탈락하는 환경에서 어간말 ‘스’ 또는 ‘ㅎ’이 탈락하고 나면 활음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과 같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활음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활음화 현상을 일으킨다. (이때 하나의 음절이 줄어들게 되어 발화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손실을 겪게 되어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 활음화를 일으킨 음절은 장음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장모음화 현상에 대해서는 아래 B11.보상적 장모음화 항을 참조하기 바람.) 例. 붓---어: 부어 → 뷔, 놓---아: 노아 → 놔, 짓---어: 지어 → 저:저, 찢---어: 찢어 → 찌:찌.

11. ㄴ삽입: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말음이 자음이고 뒤에 오는 단어 접미사의 첫음절이 [i]나 [ya, yə, yo, yu]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n’을 삽입하여 ‘nyi, nya, nyə, nyo, nyu’로 발화한다. 例. 꽃[kkot̄]+입[ip̄]: 끈넙[kkonnyip̄], 홀[hot̄]+이불[ibul]: 혼니불[honnyibul], 앞[ap̄]+이[i]: 암니[amnyi], 내복[nɛbok̄]+약[yak̄]: 내복낙[nɛboŋnyak̄], 영업[yəŋəp̄]+용[yoŋ]: 영업농[yəŋəmnyoŋ], 국민[kuŋmin]+윤리[yullyi]: 궁민눌리[kuŋminnyullyi].

12. 단모음화:

1) 기저에서 장모음을 갖는 용언어간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모음 음장 [̄]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단모음으로 실현된다. 例. (옷을) 걸다, 걸지, 걸고, 걸어,

(길을) 걷다, 걷지, 걷고, 걸어,
(불에) 굽다, 굽지, 굽고, 구워,

체언의 경우에는 단모음화 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例1), 용언의 경우에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단모음화 규칙에 적용되지 않고 기저의 음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예들도 있다(例2). 例1. 감(과일), 감이, 감을, 감으로, 감만, 감도; 밭(주름), 밭이, 밭은, 밭을, 밭로, 밭만, 밭도; 셋(3), 셋이, 셋은, 셋을, 셋으로, 셋만, 셋도. 例2. 굶다, 굶고, 굶지, 굶어, 굶으니; 없다, 없고, 없지, 없어, 없으니; 벌다, 벌고, 벌지, 벌어, 버니.

2) 장모음의 용언 어간에서 만들어진 파생명사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파생접미사 앞에서 그 어간이 단모음으로 실현되지만(例1), 장모음의 용언 어간에서 만들어진 파생부

사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부사화접미사 앞에서도 그 어간은 단모음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장모음 어간이 그대로 실현된다(例2). 例1. 덩다 > 더위, 떨다 > 떨이, 털다 > 털이개, 참다 > 참음, 웃다 > 웃음, 걷다 > 걸음. 例2. 많다 > 많이, 적다 > 적이, 굵다 > 고이, 없다 > 없이.

2) 기저에 장모음을 갖는 용언의 어간에 사동접미사나 피동접미사 ‘이, 히, 리,기’가 결합되면 그 어간은 단모음으로 실현된다. 例. 담다 → 담기다, 굵다 → 굵기다, 웃다 → 웃기다, 알다 → 알리다, 분다 → 불리다, 밟다 → 밟히다, 쌓다 → 쌓이다.

13. 장모음화: 1) w-활음화나 y-활음화를 경험할 때(활음화 현상에 대해서는 9, 10을 참조 바람) 각각 두 음절에 할당되어 실현되던 두 모음은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비음절화를 거치게 된다. 활음화의 경우 비음절화에 따른 시간상의 손실이 활음을 형성한 음절의 장모음화를 통해 보상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활음화 현상이 일어날 때 비음절화에 의한 시간의 손실이 해당 음절의 장모음화를 통하여 실현된다. 例1. w-활음화현상과 장모음화([]속의 : 는 장음표시) (꿈을) 꾸--+어: 꾸어[kkuə] → 꺾-[kkwə:]. 例2. y-활음화현상과 장모음화 (반지를) 끼--+어: 끼어[kkiə] → 꺾-[kkyə:].

단, y-활음화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개자음이 [i]모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장모음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 경우에 y-활음화현상에 의해 형성된 y는 구개자음 뒤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곧바로 탈락해 버리고 단모음만 실현된다. 例. (짐을) 지--+어: 지어[ciə] → 저: 저[cə], (사람을) 치--+어: 치어[chiə] → 처: 처[chi], (맛이) 시--+어: 시어[syie] → 셔: 셔[syɛ].

2) 형태소 내부에서 고모음(‘우’나 ‘이’) 탈락이 이루어져 재구조화된 어간형들도 장모음으로 실현된다. 例. 깨우다 > 깨다(깨어 → 깨), 게우다 > 게다(게어 → 게), 외우다 > 외다(외어 → 외), 매이다 > 매다(매어 → 매), 고이다 > 괴다(괴어 → 괴).

3) ‘ㅅ’불규칙용언과 ‘ㅎ’규칙용언의 어간에 ‘으’계 접사가 결합되면, 어간말 ‘ㅅ’이나 ‘ㅎ’은 탈락하는데 다시 모음끼리 만나게 됨으로써 모음충돌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 때 ‘으’계 접사의 ‘으’가 탈락하게 되고, ‘으’가 탈락하면 잃어버린 음절에 대한 시간적 보상으로 장모음화가 일어난다. 이 경우, 어간말 ‘ㅅ’이나 ‘ㅎ’의 탈락이 일차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개음절 어간형을 갖는 용언에 ‘으’계 접사가 결합하여 생기게 되는 모음충돌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으’계 접사의 ‘으’가 탈락하더라도 이 때에는 장모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例. 굶--+으면 > 그으면 → 그면, 좋--+으면 > 조으면 → 조면. cf. 꾸--+으면 > 꾸면, 꾸--+으면 > 꾸면.

14. ‘ㅎ’ 탈락: 국어에서 어중의 ‘ㅎ’은 유성음 사이에서 필수적으로 또는 수의적으로 탈락한다.

1) 필수적으로 탈락하는 경우: ‘ㅎ’불규칙용언의 경우 부사형어미 ‘-아/어’ 앞에서 관형사형어미 ‘ㄴ, ㄹ’ 앞에서, 그리고 설명형어미 ‘-면’ 앞에서 어간말 ‘ㅎ’은 필수적으로 탈락한다(그예와 음성적 실현에 대해서는 ‘ㅎ’불규칙용언 ‘좋다’의 예를 참조하기 바람).

2) 수의적으로 탈락하는 경우: 어중의 ‘ㅎ’이 필수적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아니면 유성음간 ‘ㅎ’은 수의적으로 탈락한다(‘ㅎ’규칙용언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됨). 예. 아홉 [ahop̄]-아홉 [aop̄], 많이 [manhi]-마니 [manyi].

15. 두음법칙: 어두 위치에 오는 한자어로서, ‘i, ya, y^ə, yo, yu’ 앞에 오는 ‘ㄴ’은 탈락한다. 뒤의 규칙 B19를 통해 도출될 ‘뉴수, 네의, 니유’ 등의 예는 이 규칙을 통해 다시 ‘유수, 예의, 이유’ 등으로 바뀌어 실현된다. 예. 여자 [nyy^əja]: 여자 [y^əja] cf. 남녀 [namny^ə], 뇨도 [nyyodo]: 요도 [yodo] cf. 배뇨기 [p^ənyogi], 닉명 [nyⁱmy^ə]: 익명 [i^əmy^ə] cf. 은닉 [i^ənyik].

어두의 ㄴ이 구개음 [i]이나 구개반모음 [y]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은 구개음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18. 구개자음 뒤에서의 구개음 [y]탈락현상’과 같은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전자의 경우에는 어두의 ㄴ이 탈락하는 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구개반모음 [y]가 탈락한다는 점이 다르다.

1) 다음의 한자어는 어두의 위치가 아니더라도 관용에 의해 ‘ㄹ’을 발음하지 않는다. 예. 나열: 나열, 분렬: 분열, 비률; 비율, 선률: 선율.

2) 서양어계 외래어의 경우 어두에 오는 ‘ㄹ’을 탈락시키지 않고, [r]발음 그대로 실현시키며 [i]나 [ya, y^ə, yo, yu]를 앞서는 어두의 ‘ㄴ’도 그대로 실현된다. 예. 라면 [ramy^ən], 리어카 [ri^əkha], 니스 [nyissⁱ], 뉴스 [nyyusⁱ].

16. ‘ㄹ’의 탈락: ‘ㄹ’을 어간 말음으로 가지는 용언은 ‘ㄴ, ㅂ, ㅅ, ㅇ’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r]이나 [l]로 실현되지 않고, 이들 어미 앞에서 어간말 ‘ㄹ’을 탈락시킨다. 국어에서 ‘ㄹ’을 어간말음으로 가지는 용언은 예외없이 ‘ㄹ’불규칙활용을 한다. 예. 살--+고: 살고 [salgo], 살--+오: 사오 [sao], 살--+-(으)니: 사니 [sanyi], 살--+-(으)ㄴ사람: 산사람 [san saram], 살--+-(으)ㅂ시다: 삼씨다 [sap̄-ssyida], 살--+세: 사세 [sase].

어미가 ‘-(으)니, -(으)ㄴ, -(으)ㅂ시다’ 등 ‘-(으)’로 시작하지만 유음 ㄹ 다음에서 ‘-(으)’가 탈락하는 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난 다음에 ‘ㄴ, ㅂ, ㅅ, ㅇ’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말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ㄴ, ㅂ, ㅅ, ㅇ’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용언 어간말 ㄹ이 이들 앞에서 탈락한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ㄹ’불규칙용언: 살다, 울다, 즐다, 밀다, 걸다, 절다, 팔다, 놀다, 날다, 설다, 거칠다, 말

다, 떨다, 길다, 거칠다, 얼다, 붙다, 물다 등.

17. '으' 탈락: 어간말음이 '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게 되면 어간말음의 '으'는 그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例. 뜨--+어: 떠[ttə], 뜨--+었다: 떨따[ttət̄tta], cf. 뜨--+고: 뜨고[tt̄igo].

18. 구개자음 뒤에서의 구개반모음 [y]탈락: 국어에서 구개자음 [c, j, ch, sy, ssy, ny, ly] 다음에 구개반모음 [y]가 오게 되면 구개자음과 구개반모음이라는 동일한 구개음이 이어지게 되므로 뒤에 오는 구개반모음 [y]가 탈락한다. 例. 지--+어: 지어: 저[cyə] → 저[cə], 만지--+어: 만지어: 만져[manjyə] → 만져[manjə], 고치--+어: 고치어: 고쳐[kochyə] → 고쳐[kochə], 마시--+어: 마시어: 마셔[masyə] → 마셔[masyə], 다니--+어: 다니어: 다녀[tanyyə] → 다녀[tanyə], 달리--+어: 달리어: 달려[tallyyə] → 달려[tallyə].

국어에서 sy, ny, ly와 s, n, l을 구분하여 표기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구개반모음 y와 결합되면 이들 연결체인 syyə, nyyə, lyyə와 syə, nyə, lyə를 구별하여 표기해 줄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두 종류의 음성실현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한글로는 각각 '셔, 녀, 려'로 표기할 수밖에 없다.

19. ㄹ→ㄴ: 한자어의 원음이 'ㄹ'로 시작하는 말에서 어두의 'ㄹ'은 'ㄴ'으로 실현된다. 단 그 다음에 [i]나 [y]로 시작하는 모음이 오게 되면 그 'ㄴ'은 다시 두음법칙에 의해 탈락한다. 例. 퇴성[r̄ɔsəŋ]: 뇌성[nwesəŋ] cf. 지뢰[cirø] > [cirwe], 류수[ryusu]: 뉴수[nyyusu] cf. 하류[haryu], 례의[rye'y]: 녀의[nyye'y] cf. 사례[sarye], 리유[riyu]: 니유[nyiyu] cf. 도리[tori].

요약

음변화 규칙을 음성규칙(A)와 음운규칙(B)와 기타(C)로 분류한다면, A.음성규칙의 발생 총계는 B.음운규칙의 발생 총계보다 2배 이상 더 많다. 여기에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규칙부터 순서대로 10개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위	규칙부류	명칭	백분율
1	A	음절말 유성자음의 불파화	31.84
2	A	유성음화	19.37
3	B	장모음화	10.00
4	A	설측음화	9.78
5	B	경음화	6.43
6	B	음절말 장애음 중화	5.16
7	A	ㄱ구개음화	3.71
8	C	음절 조정 규칙	3.10
9	B	단모음화	1.60
10	A	ㄴ구개음화	1.42

별도로 진행한 총체적 연구(이상억에 의하면, 음성규칙, 즉 A가 총 6개 있는데 그 중 5규칙이 10위 내에 나타나 상위 쪽에 3번이나 포함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규칙 1과 2의 합계는 전체 중 51.2%를 넘는다. 규칙 10위까지의 합계는 전체 중 92.4%를 차지한다. 13.장모음화(10%)는 12.단모음화(1.6%)보다 훨씬 높은 출현빈도를 보인다. 또 각종 구개음화 규칙의 순위는 ㄱ(7위), ㄴ(10위), ㄷ(17위), ㄷ(26위) 구개음화로 분포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삭제규칙(음운탈락 및 단순화) 계열이 14, 15, 19, 21, 25, 28위에 널리 나열되어 있는 데 반해, 삼입규칙은 23위에 ㄴ삼입 하나가 보일 뿐이다.